

# 북위 중국화 과정 속에서의 불교<sup>\*</sup> 발전과 의의에 대한 연구 -북위 한화정책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서-

한지연

금강대학교 HK교수  
ruralhen@hanmail.net

I. 서론

II. 북위왕조의 중국화 과정과 불교

III. 낙양전도와 불교의 국교화

IV. 결론

## 요약문

북위는 탁발족에 의해 세워진 통일왕조이다. 이민족으로서 중국 영역을 통치하는 데에는 정책적으로나 문화방면에 있어 통일된 기준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상 ‘한화정책(漢化政策)이라 한다. 그러나 모든 방면에서 한화정책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지 않았고, 특히 북위불교 발전과 관련지어 본다면 과연 한화정책 속에서 불교가 발전했는가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종교·문화적 배경에서의 한화정책을 재조명하면서 그 속에서 불교가 발전할 수 있었던 요인들을 찾아보았다. 한화정책은 법제에 한해 이루어진 양상이 더 크며 종교와 문화정책에까지 확대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경향은 낙양 천도 이전인 평성시기에도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폐불(廢佛)을 단순히 불교사원의 거대화라는 측면이나 유불도 삼교의 투쟁이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1-AM0046).

라는 측면으로 이해하기에 부적합하다. 폐불 직전부터 한화정책의 조짐이 보이며, 이 과정에서 사상과 종교의 통일성을 찾는 데에서 기인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폐불 이후에 불교국가인 우전국(于闐國)과의 교류현황 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천도 이후에는 서역과의 교류가 본격화되는데, 이면에는 남제 정벌과 황폐화된 낙양의 재건 등으로 인한 대규모 토목공사로 국가재정이 어려움에 처하면서 서역과의 경제적 교류를 꾀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배경은 낙양을 국제도시로 탈바꿈하게 하였고, 불교는 사상의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서역인들을 통합시키고 이들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으면서 발전할 수 있었다. 특히 『낙양가람기(洛陽伽藍記)』에 보이는 사원들은 신라원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었고, 서역승이 직접 건축한 서역풍 사원, 서역과 동일한 사원배치 양식은 낙양에서 경제활동을 하던 서역인들의 문화집합소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화정책은 한문화로의 동화가 아닌 새로운 생활상을 펼치는 활로개척의 정책이었다는 점, 불교는 서역인과 북위 황실을 연결해주는 접점으로도 그 역할을 다 했다고 볼 수 있겠다.

#### 주제어

북위불교, 북위의 한화정책, 낙양불교, 서역승

## I. 서론

북위는 선비족(鮮卑族)의 갈래 가운데서도 비교적 낙후된 부락이었던 탁발씨(拓跋氏)가 세운 나라<sup>1)</sup>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시작부터 열등감을 안고 건국된 이민족 국가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건국 초기부터 그러한 경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도무제(道武帝)부터 적어도 문성제(文成帝)에 이르는 기간 동안, 북위는 국가안정화와 더불어 그들만의 정통성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에 관해 우리는 북위의 ‘한화정책’이라 일컫는다. 그러나 과연 한화정책이 일방적인 동화를 말하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의문점이 든

1) 王仲犛, 『魏晉南北朝史』下(北京: 中華書局, 2007), p.512

다. 이러한 견해는 주로 마르크스주의 사관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중국 학자들에 의한 주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sup>2)</sup> 반면 호인의 습속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견해 등이 피력되면서 일반적인 한화정책 평가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었다.<sup>3)</sup>

북위의 한화정책은 불교발전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격적인 한화정책이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그 준비단계에서 이미 폐불을 겪었고, 그 이후의 여러 측면에서 전개되는 양상은 한화정책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화정책과 무관하지 않은 불교발전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과연 한화정책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금 되짚어볼 필요성이 있다. 지금까지 일반사학계에서 말하고 있는 한족으로의 동화 혹은 중국문화로의 동화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북위왕조가 표면상으로 내걸고 있는 한화정책의 이면에 다른 의미가 있는가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자인 일방적 동화에서는 폐불과 이후의 불교 발전사의 연결고리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한화정책으로 인해 수동적으로 이끌려 가는 모양새로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 오히려 후자의 경우 한화정책 이면의 다른 의미를 찾았을 때 비로소 당시의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불교발전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화정책은 당시 조칙의 내용이나 법제의 개정에서 있어 한진(漢晉) 시대의 것을 원용하기 때문에 기준점이 한화라는 점에 대해서 부정할 근거는 없다. 다만 사상 및 종교분야에 대해서도 정책이 적용되었는지 여부에 관해 여러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당시 불교계의 역동적인 현황에 대해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

2) 唐長孺, 「北魏均田制中的幾個問題」, 『魏晉南北朝史論叢編』(三聯書店, 1959), pp.131-153; 趙野春, 「鮮卑漢化:論北魏孝文帝改革對民族關係的調整」, 『西北民族研究』2003년 제2기, pp.31-40; 羅君, 「魏晉南北朝時期民族融和的階段性和地區特點」, 『新疆教育學院學報』, 2003년 제3기 등  
3) 古賀昭岑, 「北魏の部族解散について」, 『東方學』59, 1980, pp.64-74; 孫同勛, 『拓拔氏의 漢化及其他:北魏史論文集』, 臺北: 稻鄉出版社, 2006, pp.102-103 등

## II. 북위왕조의 중국화 과정과 불교

### 1. 북위의 중국화 과정에서 일어난 폐불

서론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북위는 이민족이 중국 북방 지역을 지배했던 왕조로서 왕조 자체의 정통성 확보와 더불어 통일국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그리고 이를 ‘한화정책(漢化政策)’이라고 명명한다. 그렇다면 불교사적 측면에서 과연 한화정책의 범주를 사회 전반으로 확대한다면 불교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한화정책을 펼쳐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불교가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는 어디에 있을까? 이러한 양상을 고찰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 폐불이 일어난 시점과 그 전후 사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위서』 「석로지」의 기록을 살펴보자.

세조가 즉위하였으나 나이가 젊었기 때문에 무공을 닦는데 마음을 두었고 항상 화란을 평정하는 것을 우선하였다. 비록 불법에 귀의하여 사문을 공경하고 존경하였지만 불교경전을 열람하여 인과응보의 뜻을 깊이 공부하지는 않았다. 구겸지의 도교를 아는데 이르러 세조는 도교의 청정 무위가 신선이 될 수 있는 징험이 있다고 여겨 마침내 그의 도술을 믿고 행하게 되었다. 당시 사도 최호가 박학다문했기 때문에 세조는 항상 그에게 큰 일을 상의하였다. 최호는 구겸지의 도교를 받들고는 더욱 불교를 믿지 않아 세조와 담론할 때마다 재차 불교를 비방하여 항상 불교는 허황된 말이며 대대로 국가경제에 해가 된다고 하였다. 세조는 그 변론의 넓음에 의해 자못 그의 말을 믿게 되었다.<sup>4)</sup>

위의 기록을 보면 이후 장안의 사찰에서 벌어진 사태의 전사(前史)가 존재했음이 분명해진다. 그 과정에 있어서는 주지하다시피 최호(崔浩)와 구겸지(寇謙

4) 『魏書』 권114 「釋老志」 제20 “世祖即位，富於春秋。既而銳志武功，每以平定禍亂為先。雖歸宗佛法，敬重沙門，而未存覽經教，深求緣報之意。及得寇謙之道，帝以清淨無為，有仙化之證，遂信行其術。時司徒崔浩，博學多聞，帝每訪以大事。浩奉謙之道，尤不信佛，與帝言，數加非毀，常謂虛誕，為世費害。帝以其辯博，頗信之”

之)에 의한 유교-도교-불교간 종교적 갈등이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관한 일반적 시각은 도교에 의한 불교의 피해 혹은 불교 사원경제의 거대화라는 측면으로 이해하고 있다.<sup>5)</sup> 이러한 시각과 조금은 상반된 견해를 제시한 것이 바로 케네스 첸이다. 그는 446년의 폐불사건은 단지 불교와 도교의 투쟁일 뿐만 아니라 비한족계 종족의 중국화에서 발생한 하나의 사건이기도 하다고 주장하였다.<sup>6)</sup> 그러나 논자는 이 두 가지 견해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일왕조를 하나의 기준점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했던 북위가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위의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최호는 국가 정책을 논하는 과정에서 이민족 종교인 불교에 관해 비호의적인 견해를 내세운 것이고, 태무제는 불교에 관한 깊은 지식이 없는 상태로 당시로서 최우선 과제인 국가정책의 안정화를 위해 폐불을 단행한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위의 논자의 주장은 태무제가 탁발족 출신으로 유교, 도교 그리고 불교에 관한 깊은 지식이 없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이민족이라는 열등의식에서의 발로가 아니라 오히려 건국 초기에 있었던 다문화의 이식(移植)과 연결시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북위 태무제가 섬서(陝西)의 하(夏), 감숙(甘肅)의 북량(北涼), 요동(遼東)의 북연(北燕)을 평정시키면서 5호16국 시대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통일유지를 위해 펼친 것이 바로 사민정책(徙民政策)이다. 이러한 사민정책은 한인, 모용부(慕容部) 이외에도 호족(胡族), 공인(工人) 등을 포함한 엄청난 숫자의 인구를 이동시키는 것으로 실행되었는데,<sup>7)</sup> 이는 곧 각 민족이 지니고 있는 문화 역시 평성에 집중되는 현상으로 이어졌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영역과 제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모든 방면에서 하나의 통일된 문화로 집중시킬 필요성이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북위 평성시기, 많은 숫

5) 何效全 주편, 안순형·임대희 옮김, 『중국사원경제사연구』(서울: 학고재, 2013), pp.82-83

6) K.S.케네스 첸, 박해당 옮김, 『중국불교』(상)(서울: 민족사, 1991), p.170 재인용

7) 다나가와 미치오, 전영섭 옮김, 「탁발국가의 전개와 귀족제의 재편」(임대희·이주현·이윤화 외 옮김, 『세미나 위진남북조사』, 서울: 서경, 2005), p.276

자의 이민현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시기에 이르면 묘장문화(墓葬文化)에서도 진(晉)의 방식으로 통일되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태무제 통치 직전부터 진제방식의 묘가 발견되고 있는데, 그 예는 다음의 도표와 같다.

〈도표 1〉 북위 평성시대 晉制式 墓葬文化의 예

시 기	묘명(墓名)
태연(太延) 원년(435)	회인현칠리채촌단양왕묘(懷仁縣七里寨村丹陽王墓), <sup>8)</sup> 대동현호동북위일호묘(大同縣湖東北魏一號墓), <sup>9)</sup> 사령북위벽화묘(岢嵐北魏壁畫墓), <sup>10)</sup> 국영양식원종장북위묘군(國營糧食原種場北魏墓群), <sup>11)</sup> 양고현하심정북위묘(陽高縣下深井北魏墓) <sup>12)</sup>
태화(太和) 8년(484)	제가피북위묘(齊家披北魏墓), <sup>13)</sup> 사마금용부부묘(司馬金龍夫婦墓), <sup>14)</sup> 안북사원북위묘군(雁北師院北魏墓群), <sup>15)</sup> 금속미엄북위묘군(金屬鎡冢北魏墓群), <sup>16)</sup> 지가보북위석곽벽화묘(智家堡北魏石槨壁畫墓), <sup>17)</sup> 전한기재업북위묘군(電焊器材冢北魏墓群), <sup>18)</sup>
태화(太和) 14년(490)	왕실 능인 만년당(萬年堂) <sup>19)</sup>

위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낙양 천도 이전에 산서성 대동(大同)을 배경으로 하는 평성시대 초기부터 이미 일반적으로 명명하고 있는 한화정책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예를 통해 태무제 때부터 이민으로 인해 생겨난 다문화의 출현에 대해 하나의 기준점을 놓고 통일시키고자 했다는 점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불교가 어떤 위치였는가에 관해서는 주로 폐불을 예로 들어 한화정책, 도교와의 연관성 등으로 인해 불교가 오랑개의 종교라는

8) 懷仁縣文物管理所, 『山西懷仁縣七里寨村丹陽王墓及花紋磚』, 『文物』, 2010년 제5기  
 9) 山西省大同市考古研究所, 『大同湖東北魏一號墓』, 『文物』, 2004년 제12기  
 10) 大同市考古研究所, 『山西大同沙峪北魏壁畫墓發掘簡報』, 『文物』 2006년 제10기  
 11) 山西省考古研究所, 『大同縣國營糧食原種場北魏墓群』, (山西人民出版社, 『三晉考古』, 2006)  
 12) 大同市考古研究所, 『山西大同下深井北魏墓發掘簡報』, 『文物』, 2004년 제6기  
 13) 王銀田, 韓生存, 『大同市齊家堡北魏墓發掘簡報』, 『文物季刊』, 1995년 제1기  
 14) 山西省大同市博物館, 『山西大同石家寨北魏司馬金龍墓』, 『文物』, 1972년 제3기  
 15) 大同市考古研究所, 『大同市雁北師院北魏墓群發掘簡報』, 文物出版社, 2008년  
 16) 韓生存, 曹承明, 胡平, 『大同城南金屬鎡冢北魏墓群』, 『北朝研究』, 1996년 제1기  
 17) 王銀田, 柳俊喜, 『大同智家堡北魏石槨壁畫墓』, 『文物』, 2004년 제12기  
 18) 山西省考古研究所, 大同市博物館, 『大同南郊北魏墓群發掘簡報』, 『文物』, 1992년 제8기  
 19) 大同市博物館, 『大同方山北魏永固陵』, 『文物』, 1978, 제7기

이유로 탄압받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논자는 태무제가 단순히 한화 정책을 배경으로 불교를 탄압했던 것 보다는 사상 및 종교계의 통일된 그 무엇인가를 찾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의 하나라고 이해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효문제(孝文帝)가 본격적으로 여러 조칙을 통해 한화정책을 도입하기 이전부터 태무제 시기에 이미 그러한 양상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위의 도표를 통해 제시된 예는 평성에 국한된 것이지만, 심지어는 내몽고 지역에 잔류하고 있던 탁발족까지도 한화정책에 귀속되는 대상이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다. 나중진은 북위가 낙양 천도 이전에도 서역을 비롯해 남방과의 왕래도 빈번했다고 주장한다.<sup>20)</sup> 그의 주장은 내몽고 호화호특시(呼和浩特市)에서 발견되는 산서성(山西省) 대동(大同)의 중형 고분과 유사한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에 근거한다. 무덤은 초기 탁발선비의 귀족묘인데 상당히 한화된 색채를 띠고 있는데 이곳에서 발견된 유물들의 특징이 남방과의 왕래를 입증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남방이란 중국의 남쪽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천도 이전부터 정통한족과의 교류에 힘을 쏟을 뿐 아니라 수도인 평성(平城)보다 이북(以北)까지 그 대상으로 귀속시킨 것이다.

북위는 분명 제도방면의 통일기준점에 있어서는 한진제도를 도입하여 통일국가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법제에 한정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입법(立法), 행정입법(行政立法), 형사입법(刑事立法), 민사입법(民事立法) 등의 여러 방면에서 진나라와 한나라의 입법제도를 그대로 채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21)</sup> 그렇기 때문에 사상과 종교계에 대해서도 통일기준을 찾고자 하는 과정이 존재했고, 그 과정에서 바로 폐불 등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폐불 직후의 불교발전사와 북위 황실의 변화 등이 시사하는 점들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절에서 이어가도록 한다.

20) 羅宗眞 지음, 정대영 옮김, 『중국 고고학 위진남북조』(서울: 사회평론, 2012), p.157

21) 장진번 주편, 한기중·김선주·임대희·한상돈·윤진기 옮김, 『중국법제사』(서울: 소나무, 2006) 참조

## 2. 폐불 이후 불교발전의 배경

앞서 주장했던 논자의 견해는 폐불 이후 전개되는 불교발전사에서 좀 더 확인할 수 있다. 태무제 통치 시기에 폐불을 겪은 이후 20여 년이 되기도 전에 불교는 이미 국교화(國敎化) 된다는 점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폐불이 단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성장한다는 것에는 배경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불교가 사상과 종교, 문화 등의 방면에서 통일기준점의 위치를 점하기는 했으나 그 과정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태무제 사후, 단 1년만을 통치했던 경무황제(景穆皇帝) 다음으로 문성제(文成帝)가 즉위한다. 그런데 그의 부인은 우전국(于闐國) 출신의 우선희(于仙姬)로<sup>22)</sup> 비록 공식적으로 사신교류와 조공헌납이 이루어질 만큼 서역과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서역호 출신을 왕비로 들었다는 점은 서역과의 우호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점을 염두해 둘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당시 우전이 ‘민간에서는 불법을 중하게 여기며, 사탑과 승니가 대단히 많고, 왕 또한 믿음이 돈독해 제를 올리는 날이 될 때마다 몸소 물을 뿌리고 청소를 하며 음식을 공양한다’<sup>23)</sup>는 기록이다. 이러한 기록은 당시 우전에서는 불교가 국교화되었다는 점을 짐작해볼 수 있고, 이러한 우전국과의 혼인을 통한 결연관계를 맺었다는 점은 비록 폐불을 겪었으나 불교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전제될 수 있는 조건인 것이다.

이와 같은 북위와 우전국 간의 관계는 문성제 다음인 헌문제(憲文帝)에 이르면 군대를 요청하는 상표문(上表文) 가운데 ‘이 노예는 대대로 대국을 받들어 왔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sup>24)</sup>는 내용을 통해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주종(主從) 관계로 양측이 대등한 관계는 아닐지라도 혼사와 외교, 정치 등이 방면에서 교류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

22) 최진열, 위의 책, p.154

23) 『北史』권97, 「列傳」85 “俗重佛法, 寺塔、僧尼甚眾. 王尤信尚, 每設齋日, 必親自灑掃饋食焉”

24) 『北史』권97, 「列傳」85 “遣使素日伽上表曰: 「西方諸國, 今皆已屬蠕蠕. 奴世奉大國, 至今無異. 今蠕蠕軍馬到城下, 奴聚兵自固, 故遣使奉獻, 遙望救援”



위의 우전과의 관계에서 볼 수 있는 두 가지 사안은 태무제 통치 직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정책 측면에서의 폐불이 아닌, 지금까지의 통설로 인식되어왔던 바와 같은 탄압이었다면 발생하기 힘들다고 보여진다. 다시 말해서 불교의 색채가 이미 강했던 우전과의 혼인문제, 정치·외교적 관계성이 곧바로 이루어지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논자가 주장한 바와 같이 여러 방면의 기준점을 모색하기 위한 과정에서 불거진 사건이라는 측면에서도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폐불 이후의 불교 발전과정에서 서역과의 교류와 더불어 한화정책 이면에 숨어있는 다방면에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점 찾기의 과정 속에서 불교가 발전할 수 있었는데 그 과정을 흔히 ‘국가불교’라는 측면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논지에서 조금 벗어난 문제이기는 하지만 국가의 측면에서 이해하느냐, 불교의 입장에서 이해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다르게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필요에 의해 불교가 변용되는 문제로 이해한다면 국가불교를 불교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논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가의 기준점을 찾는 일환으로 불교가 국교화되는 과정을 논한다면 불교의 변용이 단순히 국가불교로서만 이해해서는 안되는 문제로 생각된다. 더욱이 북위의 경우 지금까지 서술한 바와 같이 표면적인 한화정책 과정 속에 기준점 모색의 차원에서 불교가 부상되고, 그 이면에 서역과의 교류 등 다양한 불교발전의 원인이 있는 것을 간과한다면 국가불교화의 결과로만 이해하기에는 위험하다는 것이다.

다시 논고의 원 문제로 되돌아가서 폐불 이후의 서역과의 교류, 특히 우전국과의 교류를 근거로 당시 불교 발전에는 서역과의 관계도 염두해두지 않으면 안되는 점을 밝혔다. 중국의 우홍린(吳洪琳)은 태무제가 폐불을 단행한 까닭이 일반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사원경제만이 원인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의 사원경제가 후세처럼 국가에 큰 손실을 초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화(華)와 용(戎)의 민족 경계로 인해 정권유지를 위한 정통성 확보에 대한 심리가 작용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sup>25)</sup> 우홍린의 주장처럼 정통성 확보라는 차원으로 이해되는 것이 전제조건으로 폐불을 다시금 재조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 하고 있는 국가 정통성이라는 것에는 비단 한화정책 등의 정책적인 것에만 국한할 수 있는 것일까? 정책 이외의 다른 부분으로 눈을 돌려보면, 『위서(魏書)』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에 주목할 수 있다.

도무제 초에 증원을 경영하느라 주변을 돌아볼 틈이 없었다. 그 뒤 서융의 조공이 이르지 않게 되자, 유사가 한왕조의 전례를 들어 상소를 올리고 서역과 소통할 것을 청하며, 충분히 위덕을 먼 곳까지 떨칠 수 있고 진기한 물품들을 국고에 들어오게 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이에 황제가 말하길, 한왕조는 경계를 지키고 백성을 편안히 하지 않으면서 멀리 서역을 개통하여 나라의 힘을 고갈시켰으니, 무슨 이로움이 있었는가? 지금 만일 그곳과 교통한다면 백성들에게 과거의 폐단을 다시 더하는 것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명원제의 치세를 거치면 서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sup>26)</sup>

위의 기사는 북위 건국 초기에는 나라 안을 재정비하는 데에 급급하여 서역과의 교류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기사 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서역과의 교류에 관한 정당성을 ‘진기한 물품으로 국고를 채운다’라는 데에 두고 있다. 이후 3대째인 태무제 때에는 동일한 이유로 서역과의 교류가 시작된다.<sup>27)</sup> 따라서 비록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으나 북위 초기부터 서역과의 교류의 필요성에 있어서도, 태무제 때부터 시작되는 서역과의 교류에 있어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조공과 경제적 교류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당시 국가 경영에 있어서 서역의 중요성은 이미 부각되어 있었고, 한화정책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극히 법제(法制)의 측면에서만 강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25)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편, 『종교와 민족, 실크로드』(서울: 민족사, 2016), p.161

26) 『魏書』권102 「列傳」제90 “太祖初，經營中原，未暇及於四表。既而西戎之貢不至，有司奏依漢氏故事，請通西域，可以振威德於荒外，又可致奇貨於天府。太祖曰：「漢氏不保境安人，乃遠開西域，使海內虛耗，何利之有？今若通之，前弊復加百姓矣。」遂不從。歷太宗世，竟不招納”

27) 『魏書』권102 「列傳」제90 “太延中，魏德益以遠聞，西域龜茲、疏勒、烏孫、悅般、渴槃陁、鄯善、焉耆、車師、粟特諸國王始遣使來獻”

따라서 북위 폐불과 이후 20여 년의 발전 과정을 되짚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다민족, 다문화 통치를 위한 통일정책을 찾는 과정에서 폐불을 겪었으며, 다시 발전하는 양상을 띠고 있는 불교 발전의 이면에 서역과의 관계성 역시 고려의 대상으로 올려놓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언급한 서역과의 관계성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다음 장에서는 북위와 서역과의 관계를 고찰하고 효문제 이후 황제의 불불활동의 면면들을 알아보도록 한다.

### III. 낙양천도와 불교의 국교화

#### 1. 낙양천도와 서역인의 경제활동

낙양 천도 이전부터 서서히 한화정책이 시행되었고, 특히 법제에 대한 부분에서 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시행된 여러 정책 가운데 특히 눈여겨볼 만한 점은 북위 왕실에서 행했던 순행(巡幸)과 관련된 기록이다. 순행은 황제가 통치를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각 지역을 돌아다니는 활동을 말한다. 순행에서의 활동 가운데 두드러지는 점은 한인과 호인 각각에 대한 제사를 황제가 직접 올렸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는 최진열이 그의 책에서 그래프로 표식한 것과 같이 순행활동의 항목 가운데 무려 18.1%에 해당하는 항목이기도 하다.<sup>28)</sup>

최진열이 제시한 표에 따르면 도무제 때 호인제사 5회, 한인제사 5회이며 명월제 때 각각 38회, 9회, 태무제 때는 각각 4회, 5회이며 문성제 때는 한인제사만 5회이며 현문제 때는 순행활동에 제사의식이 없었다. 이어 효문제 때는 호인제사 2회, 한인제사 21회이며 선무제와 효명제 때 모두 한인제사만 각 4회와 2회로 집계되고 있다. 이러한 수치로 보았을 때 북위 건국 초기에는 호인제사의 횟수가 월등히 많다가 태무제를 기점으로 한인제사의 횟수가 늘어나고, 중

28) 최진열, 『북위황제 순행과 호한사회』(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p.89

국에는 왕실순행길에서 호인제사에 참여하는 일은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효문제 때는 이례적으로 한인제사가 급등하고, 그 이후에는 호인제사에 참여하는 일이 없어진다. 북위 왕실의 정통성이 탁발족, 다시 말해서 한인과 호인으로 분류하면 호인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순행에서의 호인제사가 점차 없어진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정통성을 한화(漢化)시키고자 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순행에서의 한인제사 급증의 예가 아니더라도 정책적으로 한인에 대한 호의적 태도는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태화(太和) 20(496)년 효문제가 내린 조칙에 따르면 원래 가지고 있는 탁발(拓跋)씨를 원(元)씨로 바꾸는 개성(改姓)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sup>29)</sup> 이는 중국 한족의 입장에서 본다면 호성(胡姓)을 한성(漢姓)으로 개칭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낙양천도 직후에 내려진 조칙이기 때문에 중앙으로의 진출과 한화정책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반면 북위의 북쪽 변방 지역에서 남아있던 호인들의 경우에는 호성과 한성을 모두 사용했다.<sup>30)</sup> 때문에 호성의 한성 개칭 범위가 낙양으로 천도한 일부 호인지배계층에 한정된다는 견해도 있다.<sup>31)</sup> 그러나 최진열의 통계에 따르면 『위서』에서 한성으로 표기된 호인이 최소 83.9%에 이르고 묘지명(墓誌銘)에서는 99.4%의 통계가 나와 기록과 명문을 합하면 90.2%에<sup>32)</sup> 이르는 성의 개칭이 이루어진 것이다. 때문에 북위왕조, 특히 효문제를 기점으로 국가 정책의 변화와 조칙을 통해 한화정책이 본격화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당시의 이와 같은 경향성은 탁발족이 제도·사상을 비롯한 한(漢) 문화 속으로의 정착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불교 발전에는 저해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가능성은 앞서 언급했던 호인제사의 통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폐불을 단행했던 태무제 때는 호인제사가 38회에서 4회로 급감하는 등 한(漢)과 호(胡)

29) 『魏書』권7, 「高祖紀」下. “二十年春月丁卯 詔改姓爲元氏”

30) 최진열, 「北魏 孝文帝的 胡姓 개칭과 그 성격-孝文帝的 漢化政策의 실증적 검토」, 『대동문화연구』 제 82집, 2013, p.220

31) 孫 同助, 「孝文帝的遷都與漢化」, 『拓拔氏의 漢化及其他 北魏史論文集』, 臺北: 稻鄉出版社, 2005, p.119

32) 최진열, 위의 논문, p.232

에 대한 인식이 대립을 이루어 불교 역시 호에 해당되는 종교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위시대 불교가 성행했던 이유에는 낙양천도 이후, 낙양이 국제화된 도시로서 기능을 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효문제 때에 이루어진 낙양 천도는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는 점은 이미 주지하는 사실이다. 그리고 낙양 천도와 더불어 사회 모든 방면에서 한화정책이 잘 이행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최진열에 따르면 호인의 지배층에서조차 호성사용을 고집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언어·의례·제사·음악 분야에 있어서는 자신들의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여 태무제 시기의 호한잡유(胡漢雜糅) 현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sup>33)</sup> 여기서의 호(胡)는 비단 서역인만이 아니라 북방에 민족까지 모두 포함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특히 법제가 아닌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언어·의례·제사·음악의 부분에서 왜 그들의 문화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것을 강력하게 통제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국가를 통제하는 도구로서의 법제 및 규범에서는 통일성을 갖고자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시행착오를 거침으로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기존의 중국 법제를 그대로 원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일상생활에서 직접 접하는 대상들이 유지되고 있는 데에는 통일국가 유지를 위한 경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물론 이 외의 다른 측면도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겠지만, 경제와의 관련성에 제기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태무제 때부터 본격화되는 서역과의 교류가 선무제(宣武帝) 이후 최고조를 이루면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다.<sup>34)</sup> 서역 각국과 페르시아, 로마의 조공 회수가 119회였다는 점을 보면<sup>35)</sup> 활발한 교류가 있었다는 점도 추측해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제적 활동 이면에는 효문제가 낙양으로 천도하면서 이미

33) 최진열, 『효문제의 ‘한화’ 정책과 낙양 호인사회』(서울: 한울, 2016) pp.175-177

34) 최진열, 「北魏後期 洛陽 거주 西域人과 西域文化」, 『大東文化研究』 제87집, 2014, p.245

35) 최진열은 공식적으로 북위의 수도 낙양에 와서 교역한 횟수가 119회라 밝히고 있다.(위의 논문, p.245)

국가 재정이 황폐화된 점이 있다. 효문제 때에 남제(南齊) 친정으로 인해 이미 전쟁 비용 증대에 있어 상당부분 재정이 황폐화되었는데, 여기에 궁전과 성곽 등을 전면적으로 재건해야만 하는 천도였던 것이다. 때문에 전쟁과 대규모 토목공사의 병행은 재정지출의 한계점에 다다르게 하였고 이로 인해 효문제 다음으로 대를 이은 선무제는 서역과의 교류를 강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를 밑바탕에 둔 교류이기 때문에 언어를 비롯한 교류의 기초적인 문화는 한화정책으로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다. 교류를 위해 낙양으로 들어온 서역인들은 그들의 언어뿐만 아니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을 고집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미 행해지고 있던 한화정책에 반하는 내용이 사료에서 발견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낙양의 왕실과 더불어 지배층이 서역을 통해 들어온 물품에 큰 관심을 갖고, 애호했다는 점<sup>36)</sup>은 서역인들의 활동에 크게 제약을 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건국 초기에는 통일왕조로서의 격상을 위한 노력에 힘을 기울였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한화정책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된 정책의 기준점을 찾기 위한 방법론으로 제기된 것이 한화정책이라 할 수 있고, 오히려 이후의 정치·경제·민족 등의 여러 배경을 이해한 북위왕조의 정책은 각 분야별 기준점을 찾아갔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불교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했는가에 대해 다음 장에서 기술하도록 한다.

## 2. 다문화 이식 과정에서 불교의 사회적 위치

태무제의 폐불 이후 20여 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효문제가 표면적인 한화정책을 펼치는 시점에 다다를 때까지도 불교의 발전세는 지속적으로 상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한화정책을 펼치는 기간에도 역시 불교는 꾸준히 발전을 하고 있었는데, 특히 한화정책의 중심에서 있던 효문제의 군상봉법(君上奉法) 행

36) 『北史』권19 「列傳」제7 “齊神武後以孝武帝后配之，魏室奇寶多隨后入韶家。有二玉鉢相盛，轉而不可出。馬腦榼容三升，玉籩之。皆稱西域鬼作也”

(行)은 주목할 만하다. 『불조통기(佛祖統紀)』 기록에 의하면 효문제 때에 덕(德) 법사가 왕궁에 들어와 설법하고, 제왕이 수차례 왕원사에 방문하여 사문들과 불법을 담론한다거나 백담사에 방문하여 등(登)법사에게 성실론을 듣는 등<sup>37)</sup> 효문제의 군상봉법 행위를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효문제 때부터 이미 왕이 직접 강론을 청하고, 강론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밝힌 것처럼 효문제는 황폐화된 낙양으로 천도를 강행하고 동시에 남제를 정벌하면서 국고가 위기에 빠졌다. 이에 서역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유도한 모습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한화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펼치면서도 굳이 봉법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이유는 경제적 곤란으로 인한 서역과의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불교를 국교화하는 노선을 택한 것은 아닐까라는 연결고리를 상정해볼 수 있을 것 같다.

황실에서 직접 봉불활동에 참여한 기록은 또 있다. 선무제 때 『유마경(維摩經)』 강설을 들었다는 점과 이 때에 서역 승려가 삼천 여명에 이르렀다는 기록이 있다.<sup>38)</sup> 선무제가 용문석굴(龍門石窟)에 3개의 석굴을 만들었다는 외적인 부분 이외에도 불교 사상에 매우 심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사찰의 숫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는데, 『위서』 「석로지(釋老志)」의 기록 상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불교의 이치를 좋아해 매년 늘 금중에서 친히 경론을 강했고, 널리 명승을 모아 의지를 표명했다. 사문조록은 내기거에게 기록하게 했다. 위로는 이미 불교를 숭상하였고, 아래로는 널리 퍼뜨렸다. 연창연간(512~515)에 천하의 주군에 불교사찰이 13,727곳에 이르니 많은 무리가 지어졌다.<sup>39)</sup>

37) 『佛祖統紀』권51(『大正藏』49, p.451, a) “北魏孝文, 詔德法師一月三入殿說法. 帝數幸王園寺. 與沙門談論佛法○幸白塔寺聽登法師講成實論○詔四月八日迎洛京諸寺佛像”

38) 『佛祖統紀』권51(『大正藏』49, p.451, a) “宣武御式乾殿講維摩經. 西域沙門至者三千人”

39) 『魏書』권114 「釋老志」제20 “世宗篤好佛理, 每年常於禁中, 親講經論, 廣集名僧, 標明義旨. 沙門條錄, 為內起居焉. 上既崇之, 下彌企尚. 至延昌中, 天下州郡僧尼寺, 積有一萬三千七百二十七所, 徒

이는 선무제가 개인적으로 불교를 숭상했을 뿐만 아니라 사찰 숫자의 증대는 낙양 천도 이후 표면적으로 이루어졌던 불교통제 강화정책<sup>40)</sup>이 유명무실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을 당시 상층계급의 불교에 대한 지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견해<sup>41)</sup>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낙양가람기(洛陽伽藍記)』에 기재되어 있는 사원이 성내1곳, 외성에 비구니 사찰 1곳을 제외하면 모두 외성 밖에 사원을 건립되어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조칙은 『위서』 「석노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42)</sup> 낙양 천도 이전에는 왕성 내부에 사원과 불탑이 건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천도 이후에 조칙으로까지 왕성 외부로 사원을 이동시켰다는 점은 서역의 왕성과 사원의 위치 선정과 연결지어 생각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사막남도 상의 여러 오아시스 국가에서 이와 같은 사원 위치 선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sup>43)</sup> 서역과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던 낙양 천도 이후의 불교 발전 양상에 관해 교류사적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왕실과의 밀접한 연관성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그 원인을 찾는 데 있어서 교류사적 측면도 존재했을 것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낙양에서의 사원위치뿐 아니라 『낙양가람기』 「용화사(龍華寺)조」에는 서역에서 온 상인들에 대한 묘사와 그들이 거처하는 곳, 장사하는 장소, 코끼리와 사자를 기르는 장소 등에 관해 상세한 기술을 하고 있다. 이를 나누어보면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① 기거처 : 서역에서 귀화해 온 자는 엄자관에 수용했다가 모의리에 주택을 내려준다.<sup>44)</sup>

---

侶逾眾”

- 40) 『魏書』 권114 「釋老志」 제20 “十七年，詔立僧制 四十七條”. 승제47조를 만들어 구역별로 승려 수를 제한하는 불교통제를 강화시켰다.  
 41) 李榮爽, 安洵亭, 「北魏末의 政治動向과 佛敎에 관한 研究」, 『中國史研究』 제45집, 2006, p.90-93  
 42) 『魏書』 卷114, 志 第20, 「釋老志」 “故都城制云 城內唯擬一永寧寺地 郭內唯擬尼寺一所 餘悉城郭之外”  
 43) 한지연, 「동아시아古城의 형성과 불교전래의 연관성 試論」, 『불교학연구』 제33호, 2012, pp.205-213  
 44) 楊銜之 著, 林東錫 譯註, 『낙양가람기』(서울: 동서문화사, 2009) p.337 재인용



② 시장 : 총령 서쪽으로부터 대진국에 이르기까지 수백 나라오 수천 성에서도 즐겁게 귀화하지 아니한 자가 없다. 상인과 물건 파는 호인들은 날로 달려와 변새 지역에 자리를 잡으니 소위 천지를 통틀어 하나의 구역이 된 셈이다.<sup>45)</sup>

③ 코끼리 사육 : 영교의 남쪽 길 동쪽에 흰 코끼리와 사자를 기르는 두 구역이 있다.<sup>46)</sup>

우리는 신라원, 신라방에 관한 의미와 그 기능에 대해 대부분 인지하고 있다. 북위시대 낙양에서는 서역인들의 신라원과 동일한 기능을 가진 곳이 바로 사원이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또한 사원 주변으로 시장이 열리고 번성하는 시장으로 몰려드는 상인집단의 모습을 추정해볼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왕성 서쪽에 세워진 법운사(法雲寺)는 서역 사문 담마라(曇摩羅)가 세운 것으로 불전과 승방 모두 서역의 건축양식으로 이루어져 있다.<sup>47)</sup> 낙양으로 천도한 이후 황실에서 주도적으로 사원을 지은 것과 더불어 서역 승려가 직접 사원을 축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보인다. 이는 황실의 지원을 직접 받았을 가능성과 더불어 서역 상인들의 활발한 활동에서 파생되는 경제적 이윤이 불교교단으로 지원되었을 가능성 역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당시의 이러한 경향성은 사회적으로 국제도시 낙양을 밑바탕에서부터 지탱해준 것이 바로 불교였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발전한 불교는 국가와 밀접하게 연동되는 계기가 되었고, 사회 전반에 걸쳐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불교가 ‘동아시아적 불교’라는 변용의 측면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45) 楊銜之 著, 林東錫 譯註, 위의 책, p.338 재인용

46) 楊銜之 著, 林東錫 譯註, 위의 책, p.340 재인용

47) 『洛陽伽藍記』권4, 「法雲寺條」, “法雲寺。西域烏場國胡沙門僧摩羅所立也……佛殿僧房皆為胡飾”

#### IV. 마치며

북위가 낙양으로 천도하기 이전인 평성시대에 이미 일반적으로 명명되어진 한화정책이 시작되었음은 법제제도의 한진(漢晉) 양식을 따른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점은 진제 방식의 묘장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바이다. 그러나 사상과 종교, 문화적 측면에서도 한진제도를 그대로 원용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점이 남는다. 태무제에 의한 폐불에 대한 인식은 유불도 삼교 간의 분쟁 및 사원경제의 거대화라는 차원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그러나 본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폐불 직전에 이루어졌던 강력한 한화정책의 영향과 의의에 관해 재고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폐불 직후에 형성되었던 서역, 특히 불교가 국교였던 우전국과의 긴밀한 연관성과 관계의 지속성은 지금까지 정의내려졌던 폐불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라 생각된다. 논자는 이 문제에 관해 한화정책의 의미가 사회전반에 걸친 정책이라기보다는 각각의 분야에서 기준점을 찾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던 과정에서 불교가 폐불을 겪게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준점 찾기의 일환으로 시작된 폐불의 결말은 국가경제의 위기, 천도한 낙양이 국제도시로 탈바꿈하면서 서역과 더욱 더 공고해진 관계가 불교 발전에 탄력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 있다. 역사적인 과정에서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현상은 불교가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집단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되면서 우리는 이것을 동아시아적 불교의 변용이라 부른다. 사상적인 변화와 변용뿐만 아니라 사회적 현상과 더불어 변동되는 불교 자체의 움직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 1. 원전류

- 『魏書』
- 『北史』
- 『佛祖統紀』

### 2. 단행본

-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편, 『종교와 민족, 실크로드』, 서울: 민족사, 2016
- 王仲犛, 『魏晉南北朝史』下, 北京: 中華書局, 2007
- 山西省考古研究所, 『大同縣國營糧食原種場北魏墓群』, 山西人民出版社, 2006
- 大同市考古研究所, 『大同市雁北師院北魏墓群發掘簡報』, 文物出版社, 2008년
- 羅宗眞 지음, 정대영 옮김, 『중국 고고학 위진남북조』, 서울: 사회평론, 2012
- 何茲全 주편, 안순형·임대희 옮김, 『중국사원경제사연구』, 서울: 학고재, 2013
- 楊銜之 著, 林東錫 譯註, 『낙양가람기』, 서울: 동서문화사, 2009
- K.S.케네스 첸, 박해당 옮김, 『중국불교』(상), 서울: 민족사, 1991
- 에드워드 사이드, 『오리엔탈리즘』, 서울: 교보문고, 1995
- 임대희·이주현·이윤화 외 옮김, 『세미나 위진남북조사』, 서울: 서경, 2005
- 장진번 주편, 한기중·김선주·임대희·한상돈·윤진기 옮김, 『중국법제사』, 서울: 소나무, 2006
- 최진열, 『북위황제 순행과 호한사회』,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 최진열, 『효문제의 ‘한화’ 정책과 낙양 호인사회』, 서울: 한울, 2016

### 3. 논문류

- 唐長孺, 「北魏均田制中的幾個問題」, 『魏晉南北朝史論叢續編』(三聯書店, 1959), pp.131-153
- 趙野春, 「鮮卑漢化:論北魏孝文帝改革對民族關係的調整」, 『西北民族研究』 2003년제2기, pp.31-40
- 羅君, 「魏晉南北朝時期民族融和的段階性和地區特點」, 『新疆教育學院學報』, 2003년제

### 3기

- 古賀昭岑, 「北魏の部族解散について」, 『東方學』59, 1980, pp.64-74
- 孫同勛, 『拓拔氏の漢化及其他:北魏史論文集』, 臺北: 稻鄉出版社, 2006, pp.102-103
- 孫同勛, 「孝文帝的遷都與漢化」, 『拓拔氏の漢化及其他 北魏史論文集』, 臺北: 稻鄉出版社, 2005, p.119
- 懷仁縣文物管理所, 『山西懷仁縣七里寨村丹陽王墓及花紋磚』, 『文物』, 2010년 제5기
- 山西省大同市考古研究所, 『大同湖東北魏一號墓』, 『文物』, 2004년 제12기
- 大同市考古研究所, 『山西大同沙峪北魏壁畫墓發掘簡報』, 『文物』 2006년 제10기
- 大同市考古研究所, 『山西大同下深井北魏墓發掘簡報』, 『文物』, 2004년 제6기
- 王銀田, 韓生存, 『大同市齊家堡北魏墓發掘簡報』, 『文物季刊』, 1995년 제1기
- 山西省大同市博物館, 『山西大同石家寨北魏司馬今龍墓』, 『文物』, 1972년 제3기
- 韓生存, 曹承明, 胡平, 『大同城南金屬鎂廠北魏墓群』, 『北朝研究』, 1996년 제1기
- 王銀田, 柳俊喜, 『大同智家堡北魏石槨壁畫墓』, 『文物』, 2004년 제12기
- 山西省考古研究所, 大同市博物館, 『大同南郊北魏墓群發掘簡報』, 『文物』, 1992년 제8기
- 大同市博物館, 『大同方山北魏永固陵』, 『文物』, 1978, 제7기
- 남동신, 「현장의 인도구법과 현장 상의 추이」, 『불교학연구』제20호, 2008
- 최진열, 「北魏 孝文帝的 胡姓 개칭과 그 성격-孝文帝的 漢化政策의 실증적 검토」, 『대동 문화연구』제82집, 2013, p.220
- 최진열, 「北魏後期 洛陽 거주 西域人과 西域文化」, 『大東文化研究』제87집, 2014
- 한지연, 「동아시아 古城의 형성과 불교전래의 연관성 試論」, 『불교학연구』제33호, pp.205-213

## The Development and Meaning of Buddhism in the Process of Sinicization of Beiwei - Reinterpretation of Sinicization of Beiwei

Han, JeeYeon  
HK professor  
Geumgang University

Since Beiwei was built by the Tuoba people, who were not the main people in China like the Han race, the sinicization of Beiwei was regarded reasonable. As the state grew, the emperors tried to adopt Han Chinese administrative systems and penal codes.

The suppression of Buddhism must have been affected by the sinicization in a way. However, if the rulers of Beiwei had tried to sinicize not only law and order but also religion and culture, it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for Buddhism to be the state religion two decades after the suppression.

Buddhism seems to have been suppressed just to unify social policies and ideologies, not because of any conflict with Confucianism and Taoism.

From the fact that Beiwei kept diplomatic exchanges with Khotan, the suppression of Buddhism cannot be regarded as meant to eliminate the religion.

Even though there was suppression, Buddhism kept developing. After the change of the capital from Pingcheng to Luoyang, the state made economic exchanges with the countries in the western region of China. It is possible to assume that Beiwei took Buddhism as the state religion in this process.

As seen in Luoyang Qielanji, the temples in Luoyang built by monks were the center of the people from western countries of China.

The sinicization should be studied from a different point of view, and the

development of Buddhism in Beiwei should be also reviewed with a new approach.

Keywords

Buddhism in Beiwei, Sinicization of Beiwei, Buddhism in Luoyang, monks in western countries of China

2016년 07월 27일 투고

2016년 09월 01일 심사완료

2016년 09월 03일 게재확정